

해남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 속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대응전략 모색 시장점유율 확대·세계화 위한 맞춤형 개발 논의

해남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회를 갖고, 김치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유통과, 전남장조경제혁신센터, 전남식품산업 연구센터, 세계김치연구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상, CJ 및 관내 김치가공산업 관련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보고회에서 우리나라 김치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김치 세계화를 선도할 해남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보고회는 농식품부의 5개년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인 국산김치 시장 점유율 확대와 국가적 차원의 국산김치 장려정책 선도방안, 김치문화 세계화를 위한 고품질 맞춤형 김치 개발에 대한 논의

가 심도있게 이뤄졌다.

보고회에 참석한 CJ 제일제당 안현구 수석부장은 “차별화된 해남김치 레시피를 개발하면 수입산 김치의 99%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 김치를 해남김치가 충분히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신삼식 센터장은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전남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참석하신 관계기관들이 적극 협력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남군은 원재료 및 식품 저장·물류센터, 가공공장, 김치 성분 기능성 연구센터(실증, 분석), 창업·수출·R&D 등 지원 인프라가 집적된 480억원 규모의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은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배추 주산지로서 가을·겨울배추 재배면적이 4,995ha에 이른다.

또한 올해 100억원 규모의 광역단위 체

소류출하조절센터가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연중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군은 관내 배추산업 활성화를 위해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역점 과제로 선정, 연초부터 김치관련 연구소 및 기업, 전남도 등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연달아 갖고,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마련해 왔다.

명현관 군수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나선 결과 2022년 김치원료공급단지 지원사업 설계비로 4억 3,500만원이 반영되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불고 있다.

명 군수는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은 해남군이 중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할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으로 국비확보와 공모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을 갖춘 해남김치로 수출 주도형 전략산업 육성까지 이어지는 김치문화의 세계화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해남군은 최근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회를 갖고, 김치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해남군 제공

광양, 중국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가

온·오프라인 방식 진행 우수특산물 33품목 전시

광양시가 중국 후허도시 사면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 오는 11일까지 광양시 특산품을 전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주관하고 푸젠성, 사면시가 공동 주최하는 사면 국제투자무역박람회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박람회 중 하나로, 전시면적 약 11만㎡, 5,000여 개 부스, 40여 개 다국적기업 및 1,018개 중대형 기업, 10만여 명의 해외바이어와 투자자가 참가하는 등 중국 내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오프라인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광양시는 전남도상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현지 오프라인 상담부스에 광양시 특산물 33개 제품을 전시했다.

또한 박람회 추진위원회에 온라인 홍보부스를 신청하고 1년간 광양시 소개자료와 홍보영상, 분야별 홍보사진 등을 전시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광양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홍보했다.



광양시가 사면 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우수특산물 33품목을 전시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코로나19로 방문 교류가 어려워졌지만, 전남도 상해사무소와 사면시의 협조로 박람회에 참가해 광양시를 홍보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제 자매·우호도시와 비대면 실리적 국제교류를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2009년부터 총 4회에 걸쳐 사면 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 참가해, 2011년에는 독일 함부르크시와 3대 스

타도시에 선정되는 등 국제사회에 광양시를 알렸다.

사면시와 광양시는 2007년 11월 국제우호도시를 체결해 향산물류, 농산물 수출, 전통예술단 파견,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박람회 참가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 상호 방역물품 지원을 계기로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장흥 농산물가공 공모 선정 국비 5억 확보...2023년 구축

장흥군이 최근 2022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2022년부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을 시작으로 2023년 가공장비 구축과 공정표준화 과정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화로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신축되면 HACCP인증에 적합한 작업장 시설, 식품허가 등 법적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들의 가공창업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창업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시제품 개발을 위한 가공 전문교육을 통해 가공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한 농업 분야의 필수적 사업이다”며 “식품 제조·가공에 필요한 법규, 가공기술 실습, 마케팅 전문성 등 가공창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창업능력의 창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무안군의회, 국외연수 예비 전액 반납 총 9,500만원...코로나19 대응 예산 활용

무안군의회회는 올해 편성된 공무원외출장 관련 예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반납결정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국외연수 예비 등 7,900만원을 반납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반납하는 예산은 의원 국외연수비 3,200만원 전액과 소속 공무원 국내·국외 예비 4,200만원 등 총 9,500만원이다. 이 예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종 반영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현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해외연수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장성 무궁화동산 박용성 전 두산회장 방문

사회환원 등 추후 계획 논의

장성군과 두산그룹이 함께 조성한 장성 무궁화 동산에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최근 방문했다. <사진>

박 전 회장은 유두석 장성군수와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추후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현재 박 전 회장은 두산그룹이 추진 중인 무궁화 동산 조성 사회환원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장성은 장성공원 잔디마당에 조성돼 있는 장성 무궁화 동산은 9,500㎡ 부지에 토종 무궁화 46품종 1만1,000여 주



가 있으며, 100종 규모 품종원도 보유하고 있다. 민·관 협업 단일 무궁화 동산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구례 학교밖청소년센터, 커피전문가 과정 협약

구례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최근 커피아카데미 드립드립스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학교밖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교류,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청소년들이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에 서로 협

력하기로 했다. 또한 커피전문가 과정을 통해 바리스타 2급 자격 취득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로 취업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과정은 9월부터 7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학교밖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정남진장흥농협, 이웃사랑 나눔 실천

강경일 정남진장흥농협동조합장이 최근 추석을 앞두고 장흥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40만 원 상당의 라면 50박스를 기탁했다.

강경일 조합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이웃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길현중 장흥읍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강경일 조합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강진 작천면 노인회, 경로당에 위문금 전달

강진군 작천면 노인회(회장 장관홍)가 최근 작천면 31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1,6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위문금은 작천면 노인회 회원 150명이 모은 회비로 작천면 31개소 경로당이 3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총 1,600만 원을 회원 수를 기준으로 분배했다. 노인회 임원들이 각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하고 각 마을 회원들의 안부를 살펴하며 위문금을 전달했다. 장관홍 회장은 “노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추석명절을 외롭게 지낼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기쁨을 드리기를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